

지역연대성에 기반한 농촌마을 지속 가능성 연구

농촌 마을, 그 속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지속 가능성 이야기

박정연* / 백민구절초연구소 마을기업 조합원

노필순 / 충북대학교 초빙교수

이해진 / 충북대학교 교수

최상일 / 농어촌개발 컨설컨트

I. 연구 필요성

지난 50여 년간 압축적인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도농간 성장의 격차는 커졌다. 도시로의 인구이동으로 인해 농촌의 인구구조는 크게 변해 왔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농촌지역의 현상적 결과는 고령화와 과소화이다.

이런 농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 만들기 운동이 한참 붐을 이루다가 최근 몇 년간은 정부 주도의 다양한 농촌활성화 사업으로 재정 및 제도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양한 정책의 시도로 2000년대 이후 농촌 환경의 변화와 함께 귀농·귀촌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 소멸에 대한 위기감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조사한 전국 ‘소멸위험지수’¹⁾에 의하면 전국 지수는 2005년 1.92에서 2021년 0.75로 소멸주의 단계로, 강원, 전북,

* **박정연**(kuro67@hanmail.net): 2010년 남편의 귀농으로 충북 청주시 문의면에서 구절초 재배와 벼농사를 짓고 있으며, 시민사회 활동과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병행하고 있다.

1) 만 20~30세 여성 인구(결혼 및 출산 적령기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UN에서 분류하는 노인 기준)로 나누어 낸 지수. 일본의 사회학자 마스다 히로야가 처음 개념을 세웠다(박진경, 2022).

전남, 경북은 소멸위험 단계로 진입하였다. 충북은 2005년 1.38에서 2021년 0.60으로 소멸주의 단계로 보고 있다. 특히 농촌 중심의 네 개 군 단위 지역(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이 소멸 고위험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보고는 충북지역의 인구 소멸에 대한 위기감과 함께 농촌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농촌지역사회를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나 규범 및 사회적 신뢰 같은 사회적 자본이 소진되고 있으며, 농촌의 공동체성이 약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적 자본의 축적도가 높을수록 마을 발전 정도가 높다는(정기환 외, 2006)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사회적 자본의 해체 또는 축소는 농촌지역의 경제·사회활동의 위축과 관련이 있고, 농업의 위기가 농촌 위기가 되고 있다. 현실에서는 도시보다 인적, 물적 자원의 부재는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나 지역사회 연계망, 연대 의식의 부재에 대해서는 위기의식이 없어 보인다. 농촌은 전체 국민의 식량과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으로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못했지만(김태연, 2018), 공적 영역으로 농업·농촌을 바라보는 인식들이 확산하고 있다.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도시민 58.7%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가지는 가치가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촌 위기는 농촌만의 문제는 아니다. 공동으로 농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가 아닌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시도하고 있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강수택(2015, 77)은 연대를 경험하는 중요한 공간으로서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에 속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형태로 많은 기업이 지역에서 설립되어 활발하게 운영된다면 지역사회의 연대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해진·김철규(2021)는 농업, 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하여 지속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농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과 도전에 대해 ‘농촌 마을주민들의 연대’의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농촌 위기에 맞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연대성을 확장시키고 있는 농촌 마을에서 동력의 요인을 탐색하고, 농촌의 정체성과 가치회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면 단위 마을의 현장 사례연구는 농촌 마을 그 속에서 생산과 생활을 하는 농업인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지역연대성에 대한 직접적인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농촌지역 활성화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는 개발사업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 주민참여 기반 농촌지역 활성화라는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드웨어보다는 주민역량 강화, 문화, 복지, 주민화합 프로그램 등을 늘려가는 것이 정부의 추세이기도 하다(류석춘, 2003).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 내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근간이 되는 과정에서 생산력을 증대시켜주는 제도뿐만 아니라 규범인 비공식적인 기능을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소진광, 2004). 도시로의 이주로 가족 붕괴, 생산인력 부족 등과 함께 도시와 비교하여 낮은 소득, 교육, 보건, 문화서비스 등의 상대적 소외 등의 특성을 보이는 농촌지역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설명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으며(김영란, 2009), 사회적 자본이 기존 농촌 공동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전미리, 2022). 하지만 농촌의 사회적 관계에서 파생되는 신뢰와 결속 같은 개념들은 여전히 중요하게 작동되고 있다.

다른 한 축인 농촌지역 개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생적 지역발전 방식으로 정부의 정책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으나 지역주민이 배제된 개발은 주민 간 공동체의 파괴와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을 상실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되어, 지역 내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내발적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양준호 외, 2022). 농촌에서의 내발적 발전이란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역의 주체가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문제해결의 대안을 마련하는 지역개발 방식으로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하여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민과 단체가 개발 주체가 되어 지역 자원을 발굴 개발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전체의 발전적 변화를 도모하는 과정이다(김태곤 외, 2006). 그 예로서 임실치즈마을은 국가 주도의 방식이 아닌 상향식 정책제안에 내발적 발전방식으로 진행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표면적으로 국가가 제시한 경제사업을 이끌어간 마을사업처럼 보이지만 마을에서 국가가 제시한

길을 따르지 않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마을이 성장하게 된 차별화 전략이 있는 사례이다(양준호 외, 2022: 53). 하지만 현재 임실치즈마을의 처한 상황²⁾은 농촌 마을에 대한 또 다른 방향으로 경제적 자립만을 위한 방식보다는 지역적 연대를 통한 확장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마을의 변화를 열망하는 사회 운동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과 그 사업에 걸맞은 지역자원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스토리텔링 등의 마케팅,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조직의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양준호 외, 2022: 72). 임실치즈마을의 교훈처럼 연대가 필요하나 연대는 낯선 개념이기도 하다. 연대란 어떤 속성, 목표, 이해 관심, 운명 등을 공유하는 타인들을 향한 태도로써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연대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의 집단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며, 농촌과 같은 지역공동체는 이웃 관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노동, 소비, 교육, 신앙,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도 상호 협력 및 지원이라는 연대성의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강수택, 2015:63-65). 그런 장으로서 지역은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사람·사회·문화·경제조직과 제도, 자연과 환경, 공간 등이 상호 작용하면서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실체이다(박규택, 2009), 농촌의 위기를 맞으면서 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은 공동체 복원과 함께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도 하고, 주민주도 하에 사회적경제³⁾에 속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설립하여 활용하면서 이런 변화의 실체로서 농촌 마을을 보여주고 있다. 충청북도에는 사회연대경제 사업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촌 공동체 회사가 농산촌에 59% 이상 활동하고 있다(한주성, 2021). 농촌 공동체나 마을공동체가 약화하였다고는 하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속에서 주민들의 시민적 실천을 통하여 소중한 연대의 자원을 축적하고 있다. 앞선 사회적 자본 중심의 연구, 농촌개발중심의 연구, 마을 만들기 연구 등의 농촌 마을 연구는 농촌 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시도를 정리하고 있다. 정부 정책

2) 현재는 체험객 수가 줄어들어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그 자리를 임실군에서 만든 테마파크가 차지하였다(양준호 외, 2022: 71).

3) 사회적경제: 1990년 벨기에 왈룬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채택, 2008년 11월 재검토된 사회적경제 정의가 왈룬의회령으로 승인됨. “사회적경제란 주로 사회적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이나 결사체, 공제조합 또는 재단과 같은 회(society)에 의해 수행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이다. 이 회의 윤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이 아닌 멤버(구성원)나 커뮤니티(공동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소득의 분배에 있어 자본에 대한 사람과 노동의 우위.”(자끄 드푸르니·마르뜨 니센, 2021).

주도의 농촌지역 개발사업 관점에서 농촌 마을을 탐색하기보다는 주민주도의 실천에 기반한 농촌 마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고자 지역연대성을 중심에 놓고자 한다.

“지역연대는 지역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형성된 사회적 연대”를 의미한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조직과 조직의 관계 맺기, 관계와 관계의 연결이 강화되어 사회적으로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인을 넘어서는 또는 공동체를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 및 연대성을 확보해가는 과정 및 활동이라고 정의하며 농촌 마을 연구를 시작한다. 또한, 농촌의 지속 가능성은 농업에 기반한 경제활동의 큰 영향을 받으므로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유대가 중요한 지속 가능한 농업의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농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받아들일 만한 여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연대성에 있어서 사회성은 연대조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런 농촌 마을의 주요 연대조직들에서는 연대성 형성 및 확장 과정에서 농촌활동가(리더), 귀농·귀촌인, 사회적협동조합, 농민운동 등 이런 요인들이 지역적 특성에 맞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함께 탐색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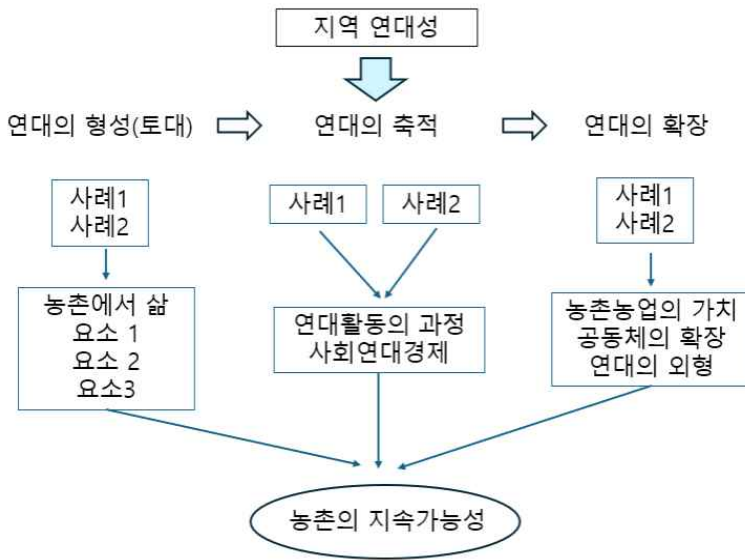
2. 현장 연구

연구진은 2023년 3월부터 연구 방향과 연구대상 지역을 구체화하고 인터뷰를 위한 3차 회의를 거쳐 설문지를 만들고, 2023년 5월부터 연구대상 지역자원과 인터뷰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지역탐색을 시작하였다.

2023년 6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연구대상 두 지역에서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여 총 29명을 인터뷰하였다. 이후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 분석과 검토를 거쳐 연구 결과를 가지고 대상 지역 현장활동가 3명과 1회, 농촌전문가 3명과 1회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 지역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연대의 중심에 있는 연대조직에 관한 연구와 그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로 관계 맺기를 하는 주민들(농업인, 비농업인)을 소개받아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 중 농업인은 농업 종사년수, 연령, 성별, 지역 거주기간 등은 연구 분석 과정에서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림 2-1〉 현장연구 분석틀



III. 연구대상

본 사례연구를 위한 연구대상으로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과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충청북도 내 농업이 주를 이루는 전형적인 농촌지역과 도시 인근 지역의 농촌 마을을 선택하였으며, 주민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이 생활권으로 면 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을보다는 면 단위의 지역을 연대를 경험하는 중요한 장으로 설정하였다.

농촌의 인구위기 상황에서 두 지역의 인구 통계자료로 볼 때, 감물면은 코로나19로 기복이 있기는 하나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미원면은 급격한 인구 감소세를 보이는 곳이다.

두 지역 모두 지역 내 순환경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그것을 위한 지역 중심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활동이 지역연대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회연대경제⁴⁾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4) 사회연대경제: 사회적경제와 연대경제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사회연대경제'로 통합 논의. 2014년 프랑스에서는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법 제정, "사회연대경제는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 적합한

두 지역 모두 주민주도의 자발적인 연대조직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 중심이 될 수 있는 연대조직이 존재하고 있다.

1.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의 인구변화를 보면 2012년 1,984명에서 2022년 2,095명으로 10년 동안 인구가 5.6% 증가하였다. 괴산군 전체가 인구소멸 고위험단계로 접근했다는 통계자료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감물면의 인구 증가는 이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표 3-1〉에서 보듯이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출생아가 줄어 초등학교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괴산군과 주민들이 힘을 모아 감물초등학교 살리기를 진행하였고, LH공사와 함께 행복보금자리 주택 10가구를 지어 감물면에 와서 살고 싶은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무상으로 살 수 있게 하여 40여 명 정도 인구가 증가하였다.

〈표 3-1〉 괴산군 감물면 인구변화

(단위: 명)						
구분	2012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구수	1,984	2,137	2,147	2,190	2,196	2,095
출생아 수	7	5	5	5	5	3

자료: 괴산군청 홈페이지

지역에 정착한 귀농인들과 마을주민들의 노력으로 귀농인들이 오고 싶어 하는 지역이 되었고, 집이 부족하여 괴산군청에서 행복보금자리 주택 20가구를 더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입주 예정이다.

기업활동 및 경제개발방식”으로 규정한다. 이윤분배라는 단일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추구해야 하며, 민주적인 지배구조를 채택해야 하는 조건과 이윤의 대부분은 기업활동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의무적립금은 비분할로서 분배할 수 없고, 청산이나 해산의 경우 청산잉여금 전체는 다른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재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추구해야 한다. 결사체, 협동조합, 재단 및 공제조합의 지위를 가진 조직은 자동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회적경제의 전통적인 법적 지위의 형태가 재확인되었으며, 사회적기업 진영도 인정한다(자꼬 드푸르니·마르뜨 니센, 2021).

〈표 3-2〉 괴산군 귀농·귀촌 가구 변화

(단위: 가구)						
구분	2014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귀농 가구	135	106	129	130	158	137
귀촌 가구	1,118	1,163	1,174	1,167	1,208	1,217

자료: 충청지방통계청

〈그림 3-1〉 감물면 행복보금자리주택



〈그림 3-2〉 도시에서 이주한 감물초 학생들



인터뷰 대상자 현황과 특성은 〈표 3-3〉과 같다.

〈표 3-3〉 괴산군 감물면 인터뷰 대상자 현황 및 특성

구분	성명	성별	연령	구분	특성
1	KA	여	30대	비농업 8년	프리랜서 디자이너, 청년 단체 활동
2	KB	남	30대	농업 4년	임대농, 다양한 농업경작 시도 희망
3	KC	여	50대	비농업 15년	대안 교육에 관심으로 귀촌한 교육활동가
4	KD	여	30대	비농업 2년	시골에서 자녀 양육 원함, 행복주택 거주
5	KE	여	40대	비농업 2년	농사(자급자족) 관심 많음. 먹거리 관련 단체에서 일함. 행복주택 거주
6	KF	여	40대	비농업 2년	사서, 남편이 전업농 준비, 현재는 먹거리 관련 단체에서 일하면서 농사, 행복주택 거주
7	KG	여	30대	농업 8년	가족농업, 흠사랑에 납품(양배추, 브로콜리 등)
8	KH	남	30대	농업 후계농	부모가 귀농, 부인이 먹거리 관련 단체 근무
9	KI	남	50대	농업 6년	가족은 타지역에 거주, 흠사랑에 농산물 납품
10	KJ	남	60대	농업 15년	전업농이었다가 농촌 관련 단체 근무+농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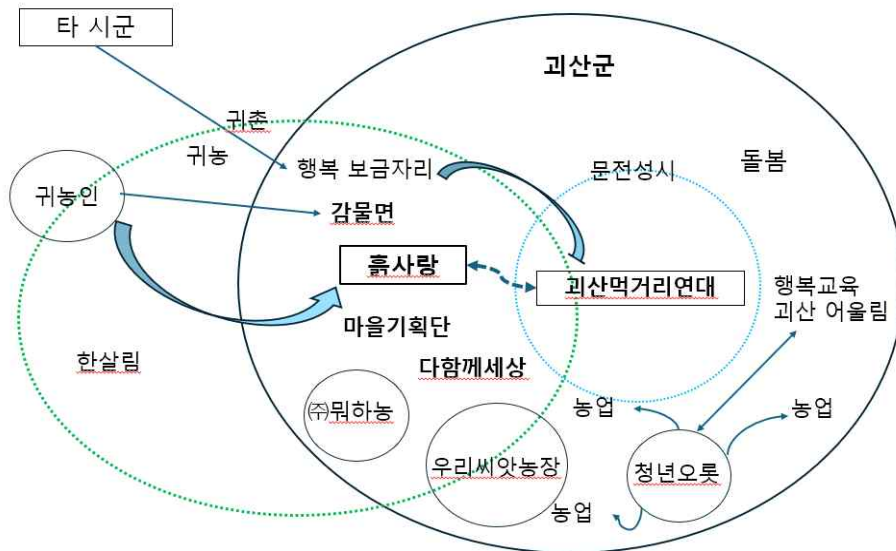
구분	성명	성별	연령	구분	특성
11	KK	여	30대	농업 5년	귀농 초창기 농업, 현재 농업매개 사업 종사
12	KL	여	50대	농업 20년	가족농업, 돌봄 관련 기관에서 반상근
13	KM	여	20대	농업 4년	귀농한 오빠 인연, 작은 음식 관련 자영업 종사
14	KN	남	50대	농업 27년	농민운동 투신, 농민회 활동, 과수농업
15 집단	KO	남	60대	농업 22년	전업농, 도농 교류(고춧가루, 절임배추 등) 활발
	KP	여	50대	농업 22년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 관련 단체 근무
	KQ	여	50대	농업 15년	농업에 종사하다 현재는 돌봄 관련 일에 종사
	KR	남	50대	농업 20년	전업농이자 현재는 기관의 대표, 부인이 지역기관 근무
16	KS	남	50대	농업 15년	농업 관련 기관 상근 활동가
계	19명				

주: 인터뷰 직접 인용 시 K는 감물면, M은 미원면을, 표기 시 농업 15년은 농업에 종사한 지 15년을 의미하고, 비농업 5년은 비농업인으로 거주 5년을 의미한다(연구자 주).

감물면에는 농민조직인 ‘흙사랑영농조합법인(대표: 윤영우)’이 있으며, 친환경 농업을 하는 70여 가구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2001년 12농가가 중심이 되어 흙살림 감물 모임이 만들어졌고, 2005년 ‘흙사랑영농조합법인’(이하 흙사랑)으로 변경하고 ‘한살림 생산자연합’에 가입한다. 친환경농업 중심의 농민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져 감물면 농민들과 지역주민들의 힘으로 운영된 지 20년이 되었다. ‘흙사랑’에는 오랜 귀농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0년에는 ‘흙사랑’을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의 민간 협력을 통해 공공급식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괴산먹거리연대’를 만들어 내었다. <그림 3-3>은 감물면에서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연대성의 형성과정을 보여준다.

‘괴산먹거리연대’는 괴산군에서 ‘괴산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다. 먹거리를 중심‘으로 지역 농민에 기반하여 지역연대성을 실현하고 있는 큰 두 축이다. ‘흙사랑’은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회원 농민들의 농산물을 한살림에 공급하고 있으며, 감물면에 이주해 온 다양한 분들이 농업을 통해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초기 귀농자들의 생산물을 수매하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회원들은 수매가 줄더라도 감수하며 공생하려는 원칙들을 고수하고 있다.

〈그림 3-3〉 감물면에서 지역연대성을 확장해 가는 과정



감물면에 들어오는 새로운 농업생산자들은 판로가 구축되어 있어 어렵지만,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면 ‘흙사랑’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귀농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되었다. ‘흙사랑’은 감물면 친환경농업생산자들의 조직이고, 괴산군 내 농민단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조직들과 민간 협력을 통해 지역의 친환경 농업생산자들 외 다른 생산자들의 판로를 개척하고 먹거리에 대한 공공성의 가치로 만들어 낸 것이 ‘괴산먹거리연대’이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자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괴산먹거리연대’는 감물면만이 아닌 괴산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흙사랑’과 함께 지역의 순환경제⁵⁾를 구축하는데 한발 다가서고 있다. 농민들의 경제조직인 ‘흙사랑’의 연대성이 ‘괴산먹거리연대’로 확장되었고, 여기에 한 발 더 확장된 연대로 괴산군의 공공 돌봄을 위한 지역 차원의 시도가 진행 중이다. 감물면은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이라 아이 돌봄에 대한 요구를 ‘흙사랑’이 받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비영리법인인 ‘다함께세상’을 만들어 ‘다함께돌봄센터’를 유치하였고, 감물면 노인들의 돌봄을 위해 마을 단위 다함께돌봄을 2023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다. “어르신 돌봄에 대한 지역적인 케어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상당한 지역의 의제로 와있다”라는 돌봄 종사자의 표현은 농촌 위기를 주민들이 주도하여 해결의

5)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지역 운동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또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할까?’ 그 대안적인 사례를 일본의 지역순환경제 모델에서 찾아보면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통해 지역경제 내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또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이 순환 경제의 전 과정을 지역주민들이 통제한다는 점이다(양준희 외, 2023: 12-13).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괴산으로 오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있는 농업법인인 ‘(주)뫼하농’은 서울에서 귀농하여 표고버섯 재배를 하다 청년들과 카페를 만들고 카페를 거점으로 농촌을 매개로 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농촌에 철학과 스토리를 담아 농촌에 오는 청년들과 '농라이프'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2023년부터 진행한 마을기획단 사업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2024년 1월 총회에서 감물면 주민 290명이 참여하여 직접투표로 지역의제를 선정하였다. 주민 290명이 총회에 참가했다는 것은 “관심과 참여가 연대의 기초라 생각해요.”라는 주민들의 평소 모습의 반영이다.

괴산군 내에 다양한 조직들(‘청년오롯’, ‘우리씨앗농장’, ‘행복교육괴산어울림’ 등)은 조직의 목표에 맞게 괴산군의 인구 유입과 청소년·청년들의 지역정착과 농업으로 유인 등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밥을 먹는 모임에서 시작해 단체를 설립한 청년오롯은 지자체 지원 없이 단체를 운영하며 괴산의 청년들이 괴산에서 삶을 모색하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 있다. 회원들끼리 결혼, 출산하기도 하며 지역정착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 또한, 마을교육활동가와 괴산군이 협력하여 ‘괴산행복교육어울림센터’를 운영하며 청소년, 청년, 지역을 연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감물면과 괴산군의 연결, 지역에 정착하는 각 조직 내 관계의 연결,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의 연대 활동 과정에서 내부 갈등도 있고 연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역 전체가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함께 도전하고 있다.

〈그림 3-4〉 괴산군 내 조직과 활동



흙사랑 영농조합법인



감자작업 중인 흙사랑 조합원



괴산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다른 지역과 연대하는 김장 나눔



(주)뫼하농 카페



청년오롯 공간

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면은 청원군에 소속되어 있다가 청주시와 청원군이 2014년 통합되어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이 되었고, 지역 내 일반고등학교가 없어 인문계 진학생들은 통학해야 하지만 실거리는 가깝지 않다. <표 3-4>와 <표 3-5>를 보면 통합 시점인 2014년 5,529명이었던 인구가 2022년에는 4,751명으로 16.4%의 인구감소율을 보인다. 또한, 출생아수도 최근 5년간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2014년보다 71%가 감소하였다. 노령인구의 비율 또한 40%⁶⁾에 이르고 있어, 출생아의 감소와 고령 인구의 증가는 농촌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원면은 도시 인근 농촌지역으로 예로부터 벼농사를 비롯한 낙농, 밭농사(고추, 배추 등)가 중심이 되었던 농업지역이지

6) 2021년 기준 미원면의 고령 인구는 1,934명으로 총인구대비 39.48%를 차지하며 2010년 대비 28.34% 증가했다(통계정보서비스, 2021).

만 옥화구경, 미동원수목원, 옥화자연휴양림 등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관광을 위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표 3-4〉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인구변화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구수	5,529	5,341	5,222	5,089	4,898	4,751
출생아 수	21	5	3	7	4	6

자료: 청주시청 홈페이지

〈표 3-5〉 청주시 귀농·귀촌 가구

(단위: 가구)

구분	2014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귀농 가구	84	108	100	92	101	95
귀촌 가구	6,049	7,567	8,125	8,422	8,484	7164

자료: 충청지방통계청

〈표 3-6〉 미원면 귀농·귀촌 가구

구분	2017년	2018년 ^a	2019년	2020년 ^b	2021년	2022년
귀농 가구	41가구	222가구	48가구	8가구	37가구	23가구
	50명	337명	60명	10명	45명	36명
귀촌 가구	142가구	72가구	164가구	25가구	136가구	118가구
	201명	105명	186명	35명	165명	149명

a: 2018년은 당시 업무 담당자가 귀농인의 범주를 넓게 보았을 것으로 예측함(미원면사무소 답변).

b: 2020년 귀농·귀촌 가구의 급격한 감소는 코로나 상황으로 예측함.

자료: 미원면사무소

인터뷰 대상자는 총 10명으로, 현황과 특성은 〈표 3-7〉과 같다. 미원면은 인구감소가 급격히 진행되어 주민들의 위기감이 크다. 2016년 미원중학교가 행복씨앗학교가 되면서 지역으로 관심이 돌려지기 시작하였고, 농민회와 귀농·귀촌인들이 함께 ‘미원교육공동체’를 만들어 어린이날큰잔치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미원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전개하였다. 농협의 이전으로 장소를 임대받게 되어 ‘동청주농촌교육문화센터’가 본격적으로 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민회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였고, 새로 미원으로 이주한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교육문화를 만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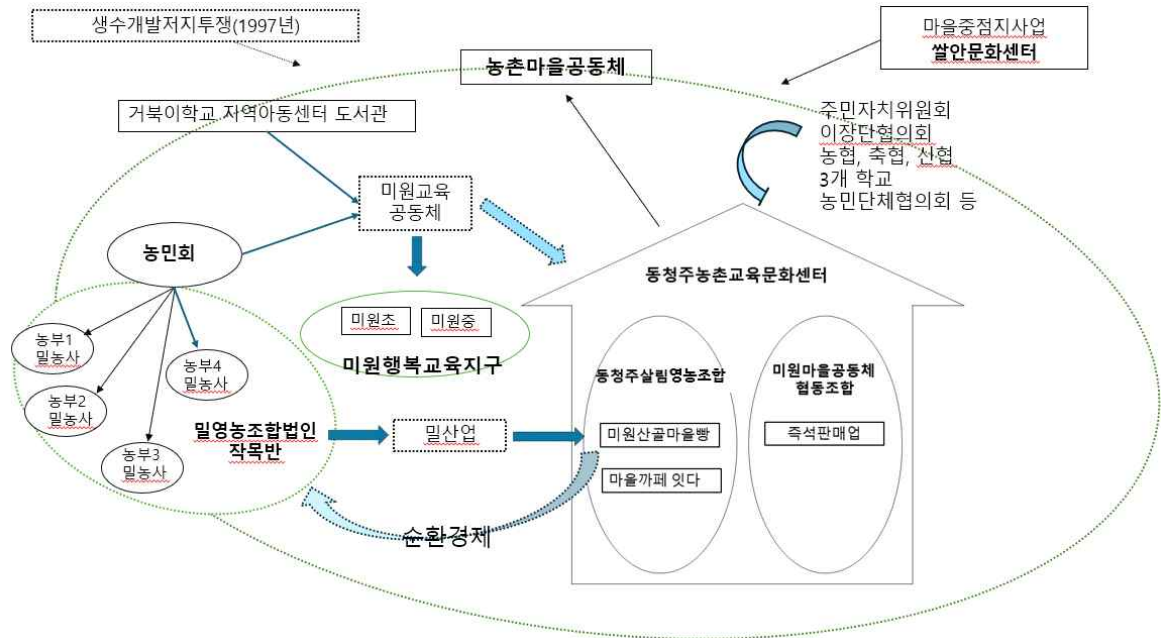
〈표 3-7〉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인터뷰 대상자 현황 및 특성

구분	성명	성별	연령	구분	특성
1	MA	남	50대	농업 25년	농민회 활동, 농민활동가, 벼 밀 양배추 농사
2	MB	남	50대	농업 11년	아삭이 고추 농사, 이장
3	MC	여	40대	비농업 8년	마을주민, 미원산골빵 근무
4	MD	여	40대	비농업 12년	마을주민, 카페있다 근무
5	ME	여	40대	비농업 2년	마을주민, 미원산골빵 근무
6	MF	남	40대	농업 후계농	과수 농사, 미원→ 청주→ 미원
7	MG	남	60대	농업 14년	청주→ 미원(14년)→ 청주(1년)
8	MH	남	50대	농업 12년	표고버섯 재배
9	MI	남	40대	농업 후계농	청년 농부, 미원→ 청주→ 미원
10	MJ	여	20대	농업 2년	청년 여성 농부, 사과 농사

내부 갈등으로 잠시 주춤하였지만 20여 년 전 귀농하여 오랜 농민회 활동으로 지역 활동을 꾸준히 해오던 농민활동가를 중심으로 ‘동청주농촌교육문화센터’를 지역 주민 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청주살림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다. 2019년 청주시농업기술센터 특산자원 융복합기술 지원으로 〈미원산골마을빵〉 브랜드를 만들어 우리밀 빵을 만들고, ‘카페 있다’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원산골마을빵〉은 마을주민들의 노력과 청주시청,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지원이 결합한 형태로 2022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제9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금상을 받았다. 〈그림 3-5〉은 미원면에서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연대성의 형성과정을 보여준다.

미원면에서는 밀 농사가 늘어나고 있어 2024년에는 30ha(90,750평)로 예상되어 빵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밀을 제외하고도 밀 제분, 밀 축제, 밀 경관 등을 통해 밀 주산지로서 활성화할 계획이다. 밀 농사를 통해 ‘미원산골마을빵’을 만들고 농가소득과 ‘동청주살림영농조합’ 이익 창출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함께 지역순환경제를 이루는 것이 다른 한 축의 목표이다. 농업만이 아닌 농업과 함께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고민은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 내었다.

〈그림 3-5〉 미원면에서 지역연대성을 확장해 가는 과정



〈그림 3-6〉 미원면 내 조직과 활동



미원산골마을빵 매대



주민들이 만드는 미원산골마을빵



마을까페 잇다와 주민 공간



우리밀을 생산하는 농부들

초기에 내부 갈등으로 인해 관계의 어려움도 발생하였고, 아직 미원면의 다른 조직들에서 ‘동청주살림협동조합’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녹록지 않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민들이 영입되어 일하고 있으나 이직률도 높고, 외부에서 주목받는 만큼 탄탄하지 않지만, 대표 중심의 연대에서 대표의 몫을 나눠 줄 마을활동가의 성장이 중요한 과제이다.

3. 두 지역의 특성 비교

〈표 3-8〉은 감물면과 미원면의 지역 특성을 정리한 표이다. 감물면과 미원면은 농촌지역에서의 농촌 위기라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면서 농업에 기반한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지역연대를 실현하는 과정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유사성과 차이점을 보일 것이다.

〈표 3-8〉 감물면과 미원면의 비교

구분	감물면	미원면
지역의 특성	농업 중심의 농촌사회	농업과 자영업, 관광사업 도시 인근의 농촌사회 유동인구 많음
인구 변동	최근 인구 변동 적음 (행복보금자리 사업 효과 있음)	최근 5년간 인구 11% 감소 출생아수도 감소
조직유형 (사회연대경제)	흙사랑영농조합 법인 괴산먹거리연대(사회적 협동조합) 다함께세상(사회적 협동조합) 문전성시(협동조합) 등	동청주살림영농조합 법인 (미원산골마을빵, 카페 있다) 미원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밀영농조합 법인 등
활동가 (리더)그룹	귀농 10년 이상 그룹, 헌신적 리 더 농민과 주민 중심	귀농 귀촌자 중심에서 주민 대중 주도로 전환
귀농·귀촌	귀농·귀촌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음 (행복보금자리 추가 건립 중)	귀농·귀촌인의 통계가 부정확함 2022년 귀농인 36명 / 귀촌인 149명
영농 후계자	귀향하는 후계농 늘고 있음	귀향하는 후계농 늘고 있음
거버넌스	선택적 협력	적극적 결합(일상적 협력)

IV. 연구내용

1. 마을에서 연대의 시작

1.1. 농촌 삶의 시작

연구참여자의 농촌 삶의 시작은 직장이 농촌으로 이주해서, 직장스트레스를 피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농촌에서 할 일을 계획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농촌에서 할 생각으로 혹은 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서 등으로 시작되었다.

“농촌 유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려고 들어왔어요. (...) 농촌 유학을 진행한 학교에 여러 가지 공동체 마을을 구성할 계획과 공동체원들이 있어서 저희도 집터를 마련하고 미원 시내에서 2년 정도만 지내고 그 공동체 마을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MC, 비농업 8년)

“결혼하고 1년간 저녁을 못 먹을 정도로 회사 일이 바빴어요. 결혼했는데 우리 가정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회사만 다니다가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다가 애를 낳아도 애도 불행할 것 같고 나는 더 불행할 것 같고. (...) 서울에서 있으면 이 삶이 절대 뒤바뀌지 않겠다 해서 그러면 해 뜨면 일어나고 해지면 쉬는 농부를 하자.”(KK, 농업 5년)

가족이 농촌에 있어서, 가족이 농촌으로 가고 싶어 해서, 시골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의 이유도 있었고, 결혼하면서 배우자가 있던 곳으로 오거나 청년 때부터 워라벨을 고민했고 배우자를 만나 함께 귀농의 뜻을 같이하고 온 경우가 있다. 부모님이 먼저 귀촌하고 이후 부모님이 있는 곳이라서, 혹은 부모님을 도와드리러 온 경우들도 있으며 자매가 있는 곳으로 따라서 온 경우들이 있었다.

“직장생활을 국제회의 기획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기획 일을 하다가 이제 도시에서 워라벨이 안 된다.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청년 때부터 그런 걸 고민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귀농하는 이야기를 듣고 뜻을 같이해서 내려왔어요.”(KG, 농업 8년)

“우리는 귀농을 전제로 결혼을 했어요.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좀 살아보자는 가치관이 비슷했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 토박이라서 도시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시골에서 아이를 온전히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게 제일 컸죠.”(KL, 농업 20년)

“제가 살던 곳에서 축산업을 더 증축할 수가 없어서 친정 식구 따라서 이사했어요. 결혼하면서 나가서 살다가, 축산업을 이어받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들어왔어요.”(ME, 비농업 2년)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여 삶을 시작하는 이유는 환경, 교육, 공동체, 가족 등 다양했지만 농촌에서 삶의 시작은 새로운 관계 맺기의 시작이며, 지역과 연결의 시작이다.

1.2. 신뢰와 상호협력

농촌에서 삶은 넉넉하고 유대감으로 서로 신뢰하게 되고, 상호협력하여 융통성 있게 시간 조절도 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연에서 채소, 과일 등 물질적으로 얻는 것도 있고 내 속도대로 살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다. 처음에는 몇 년 있다가 이사를 나갈 생각이었지만 어느덧 농촌에 적응했고 불편함이 없어졌으며, 농사가 시작되면 주기를 따라 일이 있어 농사에 집중하게 되고 더 일을 벌이기도 한다. 계절과 날씨의 변화 등 자연에게 배우는 것도 많고 때론 천재지변으로 어렵지만, 이웃이 건네는 위로의 말은 힘이 된다고 한다.

“제일 좋았던 건 농민 선후배를 만난 거죠. ‘누구네 모심어’ 하면 시간 나는 사람이 가서 하루 종일 일해. (...) 당연한 거예요. 행사가 있다 하면 ‘알았어. 나 태우러 와. 태우러 오면은 아무 대가 없이 참석해요.’”(MG, 농업 14년)

“농촌에서 살아가는데 제가 느낀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이었어요. 포대를 만나기는 정말 어려웠고, 청년들 자체를 만나기 쉽지 않죠. 농부가 아니라면 특히나 어떤 단체에 소속되기도 어렵고요. (...) ‘오롯’이라는 공간이 생겨나면서 먼저 연락을 주시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오롯에서 하는 활동에 함께하고 싶다고 연락들이 종종 오는데, 그럴 때 오롯이 만들어진 보람을 제일 느끼는 것 같아요.”(KA, 비농업 8년)

농촌에서는 이웃과 함께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고, 서로의 사정을 알고 있기 자체 유연근무제처럼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도 한다. 이웃들의 농사 일에 대한 경험담이 위로되기도 하고, 하고자 하는 일에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동네 분들이 제가 애를 키우는 걸 아니까 애 아플 때 두 시간 먼저 가면 나중에 두 시간 더 근무하고 알아서 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그런 건 만족스럽죠. (...) 여기 와서 제 편의로 살고 있는 편이에요.”(KE, 비농업 2년)

“농사를 지으면 누구든 도 닦는다. 도인이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천재지변이라든지 자연재해, 특히 유기농은 더 심하거든요. 기껏 다 심어놨는데 고라니가 다 빼먹고 또 심었는데 새가 쪼아먹고, 이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화가 나잖아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 소탈해져요. 동네 어르신이나 이웃들이 ‘농사가 원래 그런 거야. 올해 망해서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말씀 해주시면 되게 마음이 편해요. 그분들도 그걸 다 경험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KL, 농업 20년)

“우리 동네는 외지인에 대한 텃세도 없어요. 어느 동네는 같은 미원이라도 판 곳에서 우리 동네 오면은 외지인이에요. 그전에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한 20, 30년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은 현지인이에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외지인들한테 절대 이장이나 마을 직책 안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네는 저보다 한 3개월 먼저 들어온 분이 몇 년 안 돼서 이장을 맡았어요. 이장을 8년을 했죠. 마을에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던 농협 대의원 같은 직책도 외지인이라고 배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해라’ 하고 맡겨요.”(MB, 농업 11년)

“저희는 귀농하신 분들이 내려와서 초반에 지역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었어요. 초창기 15년~20년 전에 귀농하신 분들이 먼저 지역에서 자리를 잘 잡으시면서 그분들이 좋은 사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귀농한 분들이 지역 사람들과 잘 어울리니까 귀농인에 대해 거부감이 없어진 거예요.”(KH, 후계농)

이들의 주변을 보면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는 이웃이 있고, 이웃 덕분에 마을에 정착하게 되고 주민들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마을에서 함께하는 활동을 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를 통하여 신뢰와 상호협력이 이루어진다.

1.3. 자부심과 소명의식

연구참여자 중에 몇 명은 공동체를 복원해 보자는 마음으로 몸으로 하는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으며, 실제로 그 노력의 결실들이 드러났고 유지되어 농촌에서 삶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시골은 마을 단위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복원해 보자하고 시골로 내려왔어요.”(MG, 농업 14년)

“그전까지는 제가 노동조합 내지는 시민단체 활동을 주로 입으로 떠들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었다면, 지금은 내 몸 노동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기쁨, 행복 이런 게 큰 거 같아요. 그들이 느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KI, 농업 6년)

“농사짓는 즐거움이 커요. 심고 파종할 때 설레고 파란 싹이 나올 때 설레고 또 심어서 기대가 되잖아요. 벌레 먹으면 마음 상했다가도 수확할 때 보람이 있고 그런 과정들이 해마다 일 년에 두 번씩 진행되니까 난 그 즐거움과 보람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먹을거리를 내가 직접 생산한다는 것, 길러낸다는 것, 그 자체로도 또 하나의 보람이 있고요.”(KJ, 귀농 15년 차)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업의 의미를 가지면서 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 속에서 쌓은 경험이 농부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소비자도 살린다는 생각으로, 유기농업을 통해 씨앗을 보전하고 농업을 지키며 농촌에서 삶을 유지하려는 소명의식이 생기고 있다.

“농업과 자연이 삶과 가장 맞닿아있고, 살아가는 힘, 치유와 회복의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귀촌하는 이유이기도 할 테고요. 농촌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농업과 자연과 연결되는 아이덴티티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농사를 업으로 하겠다 생각을 하지 않아도 주변에 관계 맺는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니깐요. 농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농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디자인이나 교육 활동같은 부분적으로라도 농업에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요.”(KA, 비농업 3년)

“‘벌레가 생겼네. 뭘 해줘야지’, ‘쓰러졌네. 줄을 매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농부도 살리고 그걸 먹는 소비자도 살리고 땅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혼자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KB, 농업 4년).

“농사를 짓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씨앗은 지키지 못하잖아요. 씨앗은 다 외국에서 들여오잖아요. 진짜 1년만 쓰는 씨앗,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농사를 지으니깐 농업을 살리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씨앗을 지켜야 하는 거고 농지를 지켜야 해요.”(KC, 비농업 15년)

“농촌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이 먹거리 자원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유기농 약도 거의 안 하거든요. 어차피 해도 안 듣고 그냥 기피제 정도지 그걸로 약성의 효과가 있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천적 식물이나 천적 동물이 신뢰가 가더라고요.”(MI, 후계농)

농촌에서 삶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농업인이나 비농업인이나 농사를 짓거나 농촌에 사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으며, 농업을 지켜내며 농촌을 유지하고 싶은 소명의식이 생기고 있었다. 농업에 종사하거나 이주해 온 비농업인들 모두 농

촌을 지키고 싶은 이러한 소명의식은 연대 활동의 시작으로 보인다.

2. 마을에 축적되는 연대의 역사

2.1. 사례지역연대성의 축적과 확장

2.1.1. 감물면의 연대 활동을 중심으로

감물면 농업조직인 ‘흙사랑’의 20년을 살펴보면 지역에서 연대성이 형성되고, 축적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이 대표가 농민의 일을 아주 오래전부터 했죠. 70~80년대를 거쳐서 괴산군 농민이 가장 어려운 시절에 사무장도 한 7년하고 그리고 흙사랑 만들어서 20년간 책임지고 끌어오고,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곳에서 버텨냈던 수많은 경험, 관계들이 우리의 큰 자산이에요. 그 많은 관계나 경험은 누구나 인정하죠.”(KS, 농업 15년)

하지만 감물면에는 ‘흙사랑’ 이전부터 1970년대 마을신협운동, 1980년대 농민회 운동, 1990년대 농민회 자체 경제사업, 흙살림 활동 등 지역주민들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이어져 왔다. 이런 조직들이 지역에 미친 선한 영향력으로 주민들과 쌓은 신뢰는 감물면에서 현재 주민주도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2003년 10월 23일에 창립이 됐고 2000년도부터 이제 농민들 모임이 있어왔죠. 친환경 감물흙살림이라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 만들 때 거창한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농업 현실이 어려운데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활로를 찾아보자’ 그런 취지로 벼농사부터 친환경으로 시작한 거죠. 농민들이 모임을 통해서 해보고 또 출하 문제 판로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 게 있으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해결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KR, 농업 20년).

‘흙사랑’은 두 가지 큰 계기를 통해 감물면 지역 주민조직으로 자리 잡게 되며 주민들의 연대의 힘을 경험했다. 첫 번째는 ‘흙사랑’ 초창기 저장고와 시설이 없을 때, 2005년 시골 농로 포장 예산으로 나온 2억 5천만 원을 면장님과 이장님들,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동의하여 ‘흙사랑’에게 필요한 시설을 위해 사용하라고 전환해 준 것이다. 감물면에서 친환경 농업을 키우는 게 바르다고 생각한 주민들의 자발적 동의로 ‘흙사랑’ 작업장과 저장고를 지을 수 있었다.

“면 단위로 나오는 시멘트 농로 포장하는 예산이 있어요. 2005년도에 감물면에 떨어진 2억 5,300만 원, 면장님하고 이장님들이 감물에 맨날 시멘트에 깔아봐야 뭘 의미가 있냐 감물을 친환경을 좀 키워보자 해서 면장님이 “올해 1년 우리 시멘트 안 깔아 저장고 필요한데 투자해” 그래서 그 돈으로 저장고 100평 하고 작업장 50평을 지은 거예요.”(KR, 농업 20년)

또 다른 계기는 2013년 폐교된 감물중학교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군수를 이장단, 주민자치위원장, 모든 기관 단체장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설득하여 임대한 것이다. “흙사랑이라는 조직이 친환경을 하지만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조직이다. 이런 측면에서 흙사랑이 이제 지역과 함께한다 이거예요. ‘사람, 자연, 지역’. 지역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지역의 관심과 협조로 흙사랑이 20년을 올 수 있었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들만의 조직이 아니라 지역주민조직으로 자리잡았음을 확인하였다.

“13년도에 감물중학교가 폐교됐어요. 흙사랑이 임대한다고 군에다 얘기했더니 그때 군수가 이미 계획이 있었던 거지. 그걸 어떻게 얻었냐, 흙사랑 힘만 갖고는 안 돼서 지역 단체를 총동원했어요. 리 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지도자 회장, 부녀회장, 농업경영회장 또 농촌지도자 회장, 감물초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 오성중학교, 열몇 개 단체에서 동원해서 군수 면담을 요청했어요. 지역주민들이 쓰겠다는데 당신 왜 안 준다고 하나 압박해서 군수가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KR, 농업 20년)

연대라는 것은 한순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 여러 관계들의 연결 속에 축적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앞에 서시는 회장님이나 몇몇 형님들도 이제 그렇게 공공의 것이다라는 생각 하에 여러 사람이 다 잘 되게 된다는지 이런 정신이 초기부터 쪽 있어왔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공동 정산회의 방식이라든지 또는 배정 그러니까 약정량을 가져와서 회원들한테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평등하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약정량이 줄어드니까 근데 그런 과정들을 다 내부 회의나 토론이나 논쟁을 통해서 이십 년 동안 다 지나 왔어요.”(KJ, 농업 15년)

“친환경으로 접근을 하면서 농업의 가치로 보존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갔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고민들이었고, 그 속에서 시작하는 발판을 만들었고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오면 본인 거를 조금 양보해서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면적대로 조금씩 키워갔던 이런 구조예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좀 내려놓으면서 이런 활동들이 가능하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KN, 농업 27년)

“지역의 친환경 농업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비빌 언덕, 버팀목의 역할을 흙사랑이 해온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지역의 친환경 농업이 계속 성장하고 확대되는 데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KR, 농업 20년)

‘흙사랑’은 창립 초기부터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공동 정산중심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귀농자들의 생산물을 수매하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회원들은 수매가 줄더라도 감수하며 공생하려는 원칙들을 고수하고 있다. 기존 생산자들의 약정량이 줄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기 때문에 감물면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농업생산자들은 구축된 판로를 통해 귀농 초기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회원 농가가 생산하는 물품은 무엇이든 법인에 출하할 수 있고, 출하한 물품이라면 무엇이든 팔아준다는 운영방침을 준수하고 있다는 원칙(사회적경제지역화연구소, 2022)은 농촌을 지키는 농업인과 새로 들어온 귀농인들에게는 힘이 되고 다른 지역과 차이나는 연대의 모습이다.

“한살림은 어느 정도 우산 아래에 있는 농가들이예요. 한살림 농가들은 출하처가 보장돼 있고 일정한 가격이 보장돼 있어요. 근데 그 우산에 못 들어간 농가들이 참 많아요. 친환경 농가 또는 친환경이 아닌 농가들은 더 난감해요. 출하처든 가격이든 그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지금까지 농협이 감당해 왔는데 농협은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하고요. (...)

로컬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을 보며 방법을 좀 바꿔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살림은 수도권 중심의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방식인데 그것과는 다르게 지역주민들이 지역에서 먹거리 선순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참 괜찮은 개념이자 기획이었어요. 그때 문재인 정부의 푸드플랜과 맞아 떨어져서 괴산 지역 먹거리 연대를 함께 만들게 된 거죠.”(KS, 농업 15년)

괴산먹거리연대의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흙사랑에서 일하던 활동가들이 면 단위 지역에서 군 단위로 지역을 확장하고 친환경 농업인들에서 일반농업인과 지역주민들을 포괄하고 있다. 흙사랑과 위상과 역할은 다르지만, 흙사랑을 20년 동안 만들고 유지해왔던 지역연대성의 확장으로 농촌 위기에 대한 또 다른 방안의 모색이다.

2.1.2. 미원면의 연대 활동을 중심으로

미원면은 현재 ‘동청주교육문화센터’ 안에 ‘미원산골마을빵’으로 대표되는 ‘동청주살림영농조합’이 만들어지기까지 다양한 과정을 통해 연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90년대부터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투쟁들을 하면서 농민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진 거죠. 면 소재지 중심으로 다 같이 나서야지 이런 의식하는 분위기가 쪽 이어져 내려왔어요. (...)

초창기에 농민회 활동하시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지만 아직까지도 몇 분 있고, 생수 공장 투쟁하면서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졌던 분들이 현재 미원면에 중심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

80, 90년대가 귀농자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활발했어요. 우루과이 라운드 싸움하면서 학생운동 출신들이 농업, 농촌 문제를 관심갖고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먹물티 내지 말고 무조건 납작 엎드려야 버틸 수 있고, 살 수 있

다.’ 진짜 그런 자세로 들어가니까 못 버틸 게 없어요.”(MA, 농업 25년)

농촌 위기에 대한 미원면의 현재 다양한 도전 또한 오랜 지역연대성의 토대를 가지고 있다. 농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투쟁은 농민회를 만들게 되었고, 1996년도 생수 개발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으로 미원면 전체가 승리의 연대 활동 경험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것이 여전히 공동체 의식으로 지역에 남아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거북이학교 멤버였어요. IMF 때는 거북이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초, 중, 고 학생들이 200명 정도로 많았어요. OO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고요. 거북이학교를 정리할 때, 가까이에 있던 주민들의 권유로 농사를 시작했어요. 환경을 지키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하게 되었고, 제가 하던 교육사업의 연장선은 생명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MH, 농업 12년)

“이장의 일이 시골 마을에 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 정부에서 사업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농로 같은 거 포장해 주고, 산사태 위험 지역에 선제적으로 옹벽 같은 거 미리 쌓아주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하니까 애가 외지에서 들어왔지만 우리를 아껴주는구나. (...) 그런데 혼자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면에 농민회가 있더라고요. 미원에 농민회가 있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만남의 기회를 갖고 대화도 많이 하고 협조, 공동 사업도 해서 지금은 해체했지만 미원교육공동체도 만들어서 활동도 해봤죠.”(MB, 농업 11년)

“면 단위로 보면 농민회 회원들이 농민의 생존 문제, 농업의 문제를 가지고 미원면사무소 앞에 천막을 치고 나락을 세워놓고 이런 거는 했죠. 농민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일에 뭘 나서서 하거나 이런 건 별로 없었거든. 근데 이 사업은 면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농민회 회원들이 나서게 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 있는 농민이 아닌 분들하고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고리가 됐던 거예요.”(MA, 농업 25년)

청주시에서 사회운동을 하던 활동가들도 미원면에서 들어와 활동하다 농업인이 되어 한살림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주민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귀농한 분은 마을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어 이장을 하게 되고, 마을 일을 하다 보니 농민회에 들어가 연대 활동을 하게 되고, 더 확장되어 ‘미원교육공동체’ 활동을 하게 되는 등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농민회가 농민이 아닌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지역사회와 연결 되는 연대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다.

“지금은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마을활동가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역 주민들 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거죠. (...)

40대 귀농·귀촌인 중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책 보고 아이들 교육, 공동육아, 공동학습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모임을 지역으로 확대하자 해서 판을 깔고 참여를 유도한 거죠. 그래서 교육 사업, 문화 사업, 생활 사업 중심으로 했고, 동청주농촌교육문화센터 만든다고 할 때 목적으로 명시한 거예요.”(MA, 농업 25년).

“산골마을빵은 저희 같은 노동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하나로 마트가 이사를 가면서 빈 건물이 되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들어갔죠. 처음에 동청주농촌교육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빵 가게랑 카페가 더 커져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드나드는 사람도 많아져 이 공간 덕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MC, 비농업 8년)

“공간 하나에서 시작했어도 확대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고, 연대의 변화를 저도 느끼는 거예요.” (MA, 농업 25년)

‘미원교육공동체’에서 ‘동청주농촌교육문화센터’를 만들면서 귀농인을 포함하여 새로 이주해 왔던 분들 중심에서 주민들이 중심이 되었다. 귀농·귀촌인이 중심이 되어 마을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례들을 매체를 통해 많이 보게 되는데, 미원면의 경우 주민들이 중심이 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교육과 함께 생활 중심 사업을 목표로 변신한 공간은 주민의 쉼터, 일터, 문화공간이 되었다. ‘미원산골마을빵’, ‘까페잇다’는 “사람과 사람, 마을과 사람을 잇다.”라고 카페에 쓰여진 문구

처럼 사람을 연결하고, 관계를 맺는 그리고 외부의 인적·물적 자원과 연결되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일터가 되고, 연대의 공간이 되었다.

두 지역 모두 유기농업이나 농업과 연관된 주민들이 서로 협력했을 때 성과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이렇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가능하다는 경험이 쌓여 학습되니 연대성의 축적과 함께 외연을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2. 사회연대경제: 우산이 되어주는 공동체

두 지역에는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영리법인이 할 수 없는 다양한 주민 사업과 급식이나 돌봄같은 공공서비스사업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활용하고 있다. 괴산군과 감물면에 걸쳐서 ‘흙사랑’과 연결된 ‘괴산먹거리연대’, ‘다함께세상’, ‘문전성시’ 등이 있고, 미원면에는 ‘동청주영농조합법인’으로 ‘미원산골마을빵’과 ‘까페있다’가 운영되고, 밀 생산을 하는 농부들 중심으로 ‘밀영농조합법인’이 그리고 ‘미원마을공동체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대부분의 귀농자들이 아마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것 때문에 애 먹었을 건데, 우리 감물의 특성이 흙사랑 영농조합이 있었고 흙사랑 회원이 된 것 자체가 귀농자들한테는 정착할 수 있는 큰 여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농산물 생산만 하면 친환경 인증으로 좋은 가격을 받아 생산자에게 돌아오니까 다른 지역의 귀농자나 농민들보다 감물 지역 또는 한살림과 연관된 지역공동체가 있는 곳은 사는 데 있어서 좀 낫지 않았을까.”(KH, 후계농)

“감물면에는 돌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이돌봄이 있고 하나는 노인 돌봄이에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이라 흙사랑에서 요구를 했죠. 다만 지역아동센터는 비영리법인만 위탁을 받을 수 있어요. 흙사랑은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함께세상’이라고 하는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을 별도로 설립을 해서 아이돌봄센터와 지역 커뮤니티케어 돌봄 시범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어요.”(KR, 농업 20년).

“한 5년 전 우연한 기회에 농장(바람숲협동조합, 밤농사 공동경작)을 하게 됐어요. 이게 군립인데 비슷한 6명, 7명 멤버를 꾸려서 임의 조직으로 편한 데로 하고 싶었는데, 협동조합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만들게 되었죠.”(KJ, 귀농 15년 차)

“사회적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장기간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라는 걱정을 일단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ME, 비농업 2년)

정부의 지원이 아니더라도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에 살아있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경제조직을 통해 농촌에서 삶의 버팀목이 되어줄 우산이 되어주는 공동체 즉 주민들이 농촌에서 발생하는 공동의 문제에 대해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일련의 해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감물면 마을기획단 사업을 함께 했던 외부전문가는 “감물면의 주민들은 이런 일을 할 때 법인을 만드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른 지역의 농촌 주민들은 법인 하나 만들 때 엄청 힘들고 서로 출자도 잘 안 하시려고 하고 이런 경험들이 없어서 그게 굉장히 두려운데 감물은 뭐 하면 그럼 우리가 그 협동조합 하나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거거든요.”이렇게 평가한다.

‘미원산골마을빵’이나 ‘까페잇다’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카페팀에서, 제빵팀에서 직원이 계속 바뀌는 어려움도 있고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구성원들이나 임원들이 하나하나 쌓여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며, 처음에는 농민회 회원들로 시작했지만 ‘미원살림영농조합법인’을 만들고 ‘미원산골마을빵’과 ‘까페잇다’를 만들고 단계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흙사랑’이나 ‘미원살림영농조합’ 등에서 농업조직이나 다른 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만들어내는 연대의 경험은 주민들이 직접 실험하고 학습해보는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으로 지역연대성의 축적에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3. 또 다른 연대와 만남: 도전과 희망

3.1. 농업의 공익적 가치 추구하고 연결되는 삶의 가치들

연구참여자들은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농촌 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변화의 한 방법으로 농촌의 기반이 되었던 농업에 대한 공공성, 공적 가치를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제일 기본적인 식량을 책임지는 일하기에 가장 가치있는 일이 농업이고, 도시는 포화상태가 되는 반면에 농촌은 인구가 감소하기에 다양하게 살아갈 방법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KM, 비농업 4년).

“농업은 민과 관이 협력해서 만든 공적 서비스의 영역이고, 먹거리는 공적 서비스의 영역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KS, 농업 15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누군가 또 농사짓게 돼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떻게 해줄 거냐라는 부분도 필요해요. (...) 농촌 자체가 갖고 있는 공익적인 기능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시골 사는 것 자체가 농촌에 사는 것 자체가 저는 공익적이라고 봐요.”(KJ, 농업 15년)

“스스로도 왜 농업이 유지되고 발전되고 지속 가능하게끔 해야 하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을 해달라, 그리고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헌법에 들어가면 되죠.”(MB, 농업 11년)

연구참여자들이 비농업인보다는 농업인이 많고, 귀촌인들보다는 귀농인이 많아 농촌으로 들어올 때부터 농업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농촌에서의 농업을 여전히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b, 2024)에 따르면 도시민 80.5%, 농업인 78.1%가 농업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에 대해 도시민의 58.7%가 ‘가치가 많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할 위한 추가 세금부담에 대해서 62.4%가 찬성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및 보전을 위한 추가세금부담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국가적으로 농업인만이 아닌 국민 대다수가 농업·농촌을 유지함으로써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좋은 삶터와 좋은 쉼터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때(한국농촌경제연구원b, 2024), 농업의 공적 가치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뷰 결과 또한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또한,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농업 외에도 농업에서 연결되는 또 다른 가치를 삶 속에서 만들어가고 있었다.

“지금은 농라이프를 도시민이랑 같이 누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거기에 농업의 라이프를 실어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결국 농업을 사랑과 돌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땅을 사랑하고 땅을 돌봐서 농부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봐서 내 삶을 열매 맺게 해야 된다는 그런 명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전달을 하고 싶은 거라서요.”(KK, 농업 5년)

“우리나라가 경쟁으로 내몰리고 돈에 대한 기준이 너무 완강해서 돈과 경쟁으로 삶이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한 세상입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과 각각이 행복을 느끼는 이런 삶을 어떻게 만들까’, ‘어떤 공동체를 만들까’ 이런 장인 거고요. 농민회든 지역에 협동조합이든 일을 해보면서 농촌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다고 생각해요.”(KS, 농업 15년)

“새로운 친구들이 와서 농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을 하겠구나 그리고 농촌이라는 게 그냥 어떤 상품성으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건 결국 사람에게 달린 것 같았거든요.”(KK, 농업 5년)

농촌에서 살다 보면 “땅을 사랑하고 땅을 돌봐서 농부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봐서 내 삶을 열매 맺게 해야 된다”는 '농라이프'를

만들어가는 것, 농촌이 가지는 장점들을 찾아 농업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농업에서 다른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다.

3.2. 농촌사회에서 삶의 확장성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마을’이라는 농촌의 사전적 의미처럼 여전히 농촌은 전형적으로 먹거리 생산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농촌은 더 이상 농업만으로는 유지하기 어려움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농촌 안에서의 삶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소비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메리트가 생기면 자영업자들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 주거, 교육, 의료, 문화생활과 관광지, 명소, 핫플레이스 등으로 메리트가 생기면 인구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만의 특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KM, 비농업 4년)

“시골에서는 나이가 젊은 세대도 혼자 농사짓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와이프는 나가서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입을 버는 한쪽이 있고 또 농사짓는 한쪽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생활을 같이 유지해 나가는 부분도 있죠.”(KJ, 농업 15년)

“농촌에 와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키려면 청년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물론 청년 농민들도 좋지만, 청년들이 들어와서 여기 와서 카페를 하고 빵집을 만들고 음식점을 하든 뭘 하든 다양하게 들어와야 조금씩은 변화가 되요. (...) 농촌으로 들어와서 다른 경제활동을 하게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도 농촌을 지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일 수 있겠다.”(MA, 농업 25년)

“농촌이 지속되려면 젊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젊은 사람이 들어오려면 소득이 맞춰져야 해요. 그리고 생활 기반이나 주변 환경도 좋아야 하는데 그런 건 안 돼 있으면서 80~90년대식으로 의식만 가지고 ‘잘할 수 있어’라는 거로는

농촌을 지킬 수는 없다는 거지요.”(MA, 농업 25년)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만의 특색을 가진 주거, 교육, 의료, 문화생활, 관광지, 핫플레이스 등의 장점을 만들어 내고, 농업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삶의 방식을 모색할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청년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고 농업을 확장해 농업과 관련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를 통해 농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에서의 경제적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농촌을 더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곳이 아닌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이 창출되는 확장된 개념의 농촌으로 열어놓는 것이다.

3.3. 공동체에서 만나는 희망

연구참여자들은 농촌에서 자신들의 삶의 희망을 가꾸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희망은 자신만이 아니라 농촌에 대한 희망이다. 다른 청년들이, 그리고 귀농인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농촌에 정착하기 쉽게 하려고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노력을 ‘희망’이란 이름으로 지속하고 있다.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 지원해야 해요. (...) 도시에 살 때는 서로 누구 집에 놀러 가고 이런 걸 전혀 몰랐다가 여기 이사 와서는 교류가 너무 당연해졌고,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KD, 비농업 2년)

“사람들에게 농촌에서의 삶이 얼마나 멋질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통해서 농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게 되고 관계를 맺게 하고 때로는 도시에서 저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된 거죠. ‘다 접고 내려와도 여기서 또 자기 삶을 재미있게 펼쳐갈 수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또 그 친구들이 여기에 정착하다 보니까 점점 규모가 커지잖아요.”(KK, 농업 5년)

“내가 여기에 정착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내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덜 겪게

하고 싶다. 그 역할을 내가 하면 좋겠다. (...) 나 다음에 해야 할 젊은 친구들 아니면 우리 자식들, 애네들이 할 역할이나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MA, 농업 25년)

“농업으로 희망이 있다는 걸 빨리 알려줘야 돼요. 10년이 고비예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농사가 쉬워져요.”(MF, 후계농)

3.4. 또 다른 연대를 낳고: 연대 활동의 선순환

“감물 농민회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지 한참 됐죠. 올 겨울에 다시 복원하기로, 감물 농민회 재창립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멤버를 보니까 거의 원래 회원들이야. 귀농자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하지 않고 잘 정착하고 상호 협력하면 제일 좋잖아요. 저희 지역 사례는 왜 우호적인가를 보면 저는 그게 흠사랑을 통해서 온 귀농자들이 많잖아요(...). 흠사랑은 올해 주요 화두가요. ‘공동체를 어떻게 강화할 거냐’ 이게 올해 일련의 의제거든요. 영농조합법인은 사업하는 거잖아요. 사업 조직이 담을 수 없는 공동체의 내용이 참 많아요. 사업 조직을 가능하게 한 건 밑바탕에 공동체가 있어서 가능했던 거고 공동체가 있어서 사업 조직을 만든 거죠.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체성이 굉장히 약화됐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고요. 농촌지역에 공동체성을 우리가 잘 살리고 복원할거냐 올해 집중적으로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 면 단위 농민들의 어떤 생활 공동체나 농민들 간의 공동체 모두, 서로 간의 협동과 연대가 필요 하다.”(KR, 농업 20년)

“밥을 함께 먹으면서 한 해를 보내다 보니 피산 청년들이 자주 만나려면 청년을 위한 공간의 필요하겠다는 마음과 뜻이 모아졌어요. 친구를 사귀고 싶은, 문화 활동을 하고 싶은, 지역과 더 연결되고 싶은 청년들이 쉽게 문 두드리고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싶어요. 청년들이 그 안에서 촘촘히 연결되어 관계를 맺고 함께 무언가 도모하고, 연대하고, 삶을 나누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요.”(KA, 비농업 8년)

“아름다운 공동체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거죠. 정치색을 띠지 않고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뭔가를 도모하는 일이라면 서로 돕고 서로의 경조사, 우리의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해나가는 거죠. (...) 내가 농사를 안 지어도 신랑이 흙사랑 조합원이니까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지역 전체를 생각하는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지역 전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죠.”(KQ, 농업 15년)

“지역주민들이 지역에서 먹거리 선순환 체제를 만드는 게 참 괜찮은 개념이자 기획이어서 발을 담가보려고 노력했죠 (...)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형의 조직을 만들자는 개념으로 봐서 비영리식으로 유통뿐 아니라 복지에 관련된 돌봄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했죠. (...) 지역 먹거리 선순환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기후위기를 위해서라든지 지방 소멸의 대응, 아니면 보다 행복한 지역의 삶을 위해서 노력해요.”(KS, 농업 15년)

“지역의 큰 변화 중의 하나가 후계농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후계농은 원래 여기 고향이고 여기 자란 친구들이죠. 아버지가 농사짓고 있는데 직장생활을 하다가 접고 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저희 지역은 4~5년 전부터 엄청 늘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30대 초중반으로 다들 연령이 젊어요. 이제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MA, 농업 25년)

공동체를 통해 희망을 만들고 있는 두 지역의 다양한 조직들은 개인이나 자신들이 활동하는 조직이나 다른 조직들과 연대를 통하여 다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의 지역연대성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농민회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이 기반이 되어 축적된 연대성으로 사회연대경제를 만들어왔다면 다시 그 힘으로 농민회나 공동체를 복원,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회연대경제 활동의 안정화를 통해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만들거나 새롭게 농촌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 또한 강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삶을 나누는 연대 활동을 하고 싶은 청년조직, 누구나 배제하지 않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활동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농사를 짓는 후계농업인들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하여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노력하는 협동과 연

대의 모습들! 이런 지역연대성은 농촌 위기에 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 가능성의 모습이다.

연구결과

감물면과 미원면의 연구참여자들은 농민, 농민활동가, 마을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자영업이나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 그리고 주민들은 비농업인으로 구분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두 지역에서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대조직을 관찰하면서 그 주변에 관계 맺기를 통해 연결되고 있는 주민들을 인터뷰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어떤 좋은 제도나 정책이 있더라도 그것보다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지금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연구 중심에 놓고 연구 부제 ‘농촌 마을, 그 속에 살고있는 마을 사람들의 지속 가능성의 이야기’처럼 많은 분의 목소리를 듣고 이 연구에 담고자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지역연대성의 관점에서 마을에서의 연대의 시작, 마을에서 축적되는 연대의 역사, 도전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또 다른 연대와 만남의 흐름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농촌 삶의 시작은 환경, 교육, 자연, 가족 등 다양한 개인적인 이유에서였으나 사실 농촌 위기 시대에 도시를 떠나 이주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농촌에 갖는 기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농촌에서 안착하는 과정에서 이웃과 조직과 공동체와 신뢰와 상호 협력이 바탕이 되고 농촌에서 삶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가며 주민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또한, 농업 속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농촌을 지켜내고 싶은 소명의식이 생기는 것은 연대의 출발이기도 하다.

둘째, 두 지역은 다른 경로와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지역연대성을 만들고 확장시켜가고 있었다. 감물면과 미원면은 농촌지역에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면서 지역연대성에 있어서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표는 동일하지만 유사성과 차이점을 만들어낸다. 유사성으로 1) “흙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똑

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란 말처럼 두 지역 모두 지금까지 지역연대성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래전 귀농한 농민활동가들의 헌신과 신념으로 주민들과 신뢰를 쌓으면서 주민들과 함께한 공동연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연대의 과정에서 참여했던 농민, 귀농인, 농민활동가들은 지금까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 주민들이 살고있는 지역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단체와 단체장들, 지역의 유지들과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한 느슨한 연대를 형성해왔다. 그런 연대가 지역의 전환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오랜 기간 마을 속에서 주민들과 삶을 일구어온 귀농인을 포함한 농민활동가들의 헌신과 신뢰가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3) 주민들은 농촌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를 통해 공적서비스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지역연대성을 만들고 축적해 온 과정은 지역마다 역사성을 담보하고 있어 두 지역이 차이가 있으며, 지역과 조직의 특성에 맞게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만들어가고 있는 외형의 모습이나 형식 또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감물면은 오래전 귀농한 헌신적인 리더와 농업에 대해 가치를 가지고 있던 농민들과 귀농인들이 주민들과 함께 농업에서 중요한 생산과 판로개척, 분배 등의 경제활동 중심이었던 연대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의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지역연대성을 확장시켜가고 있다. 미원면은 반대로 공동체의 연대 활동을 통해 ‘미원산골마을빵’과 ‘까페잇다’의 수익과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활동으로 연대성을 확장시켜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흙사랑’ 윤 대표⁷⁾는 지역 연대체로서 ‘흙사랑’에 대해 “지금까지 20년 동안 흙사랑은 지역의 친환경이 농업이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비빌 언덕, 버팀목의 역할”을 해왔으며, “농부를 하겠다는 농민들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해 온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원칙들이 농업 중심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만들어 내었다.

미원면의 새로운 변화와 시도의 중심에 있는 ‘미원산골마을빵’ 김 대표는 미원면의 지역연대성의 확장에 대해 “마을공동체 공간 때문에 시작했던 사업이 이제는 지

7) 감물면 흙사랑 윤 대표와 미원산골마을빵의 김 대표는 연대 활동의 중심자로 기관 대표로서 추가 인터뷰를 하였고, 현장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내용을 보완, 수정하였다.

역 농민의 소득 창출, 지역 농민들의 새로운 농업구조로 지역의 농업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한다. 김 대표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우리가 공간이 어르신부터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이 소멸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공동체를 위해 함께 꿈꾸는 한 지붕 큰 가족처럼 지냈으면 하지만 현실적으로 끊임 없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직 3년간의 연대 활동에 대해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타지역에서, 정부의 다양한 기관과 기업에서 주목받고 있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농업 중심의 아름다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동청주농촌교육문화센터’의 노력은 진행 중이다.

두 지역 연대조직 대표들의 말에서 보듯이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활동의 목표와 유형은 지역연대성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러한 다양한 시도와 도전은 일정 정도 농촌의 문제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며, 인구위기 시대에 농촌을 지켜내고 있는 유의미성이 있었다.

셋째, 두 지역의 축적된 연대성은 도전과 희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연대를 만들어낸다. 1)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농업과 농촌에 사는 것 자체를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농촌에서 '농라이프'를 만들어가고 농업의 장점을 찾아 농촌에서 농업을 다양한 방식 볼 수 있도록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2)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업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삶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다. 주거, 교육, 문화, 생활, 관광 등을 통해 청년 인구를 유입하고, 농업과 병행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영역이나 농업과 연관된 일을 통해 경제적 소득을 보장하여 농업만이 아닌 다양한 일들이 창출되는 확장된 개념으로 농촌을 열어놓는 것이다. 3) 연구참여자들은 농촌에서 자신들의 삶과 희망을 가꾸고 싶어 하며 그것은 곧 농촌에 대한 희망이기도 하다. 농촌의 삶과 농촌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고,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다양한 삶을 꿈꿀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놓고 싶고, 새로 들어올 후배들에게 알려줄 비결도 준비되어있다. 두 지역에서 지역연대성의 기반 위에 농촌에서 삶을 만들어왔던 개인이나 조직들이 사회연대경제를 만들어왔다면 다시 그 힘으로 농민회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선순환구조의 연대성을 만들고 있다.

‘미원산골마을빵’의 경우에는 미원을 생산하는 대상그룹과 미원이라는 동음이의어에 출발하여 지역 상생 협업을 체결하였다. ‘미원산골마을빵’은 대상이 만든 미원·소금 등을 이용해 ‘미원빵’을 만들어 시판하고, 대상 쪽은 ‘미원산골마을빵’에 홍보·

캠페인·마케팅과 제빵 기술 등을 지원한다.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만들어가기 위한 지역 내 연대를 넘어 다른 지역 기업과 연대로 확장되어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다양한 농촌에서의 삶을 나누는 연대 활동을 하고 싶은 청년조직, 누구나 배제하지 않는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는 활동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농사를 짓는 후계농업인들, 헌신적인 모습으로 농촌에서 농업을 지키고 있는 오랜 귀농인들 그리고 지금의 도전과 변화를 주도해가고 있는 주민들! 연구참여자들 29명의 인터뷰에서 나타난 이런 협력과 연대의 노력은 농촌 위기에서 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 가능성의 모습들이었다.

결론

본 연구는 농촌 위기 속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연대성을 증진시키고 있는 마을에서 동력의 요인을 탐색하고, 농촌의 정체성과 가치회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충청북도 괴산군의 감물면과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의 현장 사례연구를 통하여 지역연대성을 실현하고 있는 연대조직들과 농업인을 포함한 마을주민 29명을 인터뷰하였다. 농촌 마을 그 속에서 생산과 생활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농촌의 현실을 진단하고 지역연대성을 통해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농촌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연대성이 실현되는 공간을 마을보다는 면 단위 생활권으로 설정하여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으로 선정하였고, 농민들이나 주민들의 생활 세계인 동시에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연대라는 구체적인 변화가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보았다. 지역은 고정화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실체라는 것을 두 지역 괴산군 감물면과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의 사례연구는 보여주고 있으며, 면 단위의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 위기에 대해 주민들 주도의 연대조직이나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연대에 있어서 지역이 변화하는 공간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사는 사람이 연대성을 만들어가는 주체라는 것 또한 중요한 지점이었다.

두 지역의 연대성이 형성되고 축적되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현재 ‘흙사랑’과 ‘괴산먹거리연대’, ‘다함께세상’, ‘동부농촌교육문화센터’, ‘미원산골마을빵’으로 외형화된 모습은 지역에서, 마을에서 축적된 연대의 역사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속에는 농민으로, 농민활동가로 헌신과 신념을 지켰던 분들에 의해 확장되었으며, 주민주도로 만들어 온 과정이 있다. 또한, 두 지역에서는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사회연대경제를 활용하였다. 두 지역이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나 외형된 사회연대경제의 모습은 지역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공적서비스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감물면은 경제활동 중심의 연대 활동이 기반이 된 영농조합법인인 ‘흙사랑’에서, 사회적협동조합 ‘괴산먹거리연대’와 ‘다함께세상’을 만들어 급식과 돌봄의 공공서비스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지역연대성을 확장시켜가고 있었다. 미원면은 반대로 교육공동체활동으로 시작했던 연대 활동이 공간이 생기면서 질적 변화를 이루어 주민들의 쉼터로서만이 아닌 밀 농사와 연관하여 우리밀 빵을 만들어 내면서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연대성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쉽지 않은 과정을 겪으면서 주민들은 신뢰하고 토론하며 상호협력하며 갈등을 해소하는 등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경험도 쌓게 된다.

농촌 위기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농촌 위기는 농촌에 사는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농민을 포함하여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직접 스스로 대안을 찾아가기 쉽지 않지만,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농촌 위기 시대에 공적인 영역으로서 농촌이 유지되기 위해서 두 지역의 사례처럼 농업에 기반하면서 농촌에서의 다양한 삶을 확장해나가는 주민들이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지만, 감물면의 경우 그동안의 연대 활동의 성격에 대해 사회 운동적 성격을 가진 대안농업을 위한 연대 활동으로, 미원면의 경우 꾸준한 지역공동체 활동이 기반이 된 공동체 사업형 연대 활동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동안 충청남도 홍성, 전라북도 완주, 강원도 원주

등이 지역 농촌이 모범지역으로 사례연구가 주로 진행되었고 벤치마킹의 선도 지역이기도 하였다. 충청북도 두 지역의 사례 또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연대성을 축적하고 확장하고 있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그 안에서 스스로 도전하고 창조하여 새로운 사회경제연대의 유형을 만들어 내는 지역연대성은 농촌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다른 농촌지역에서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중요한 점은 두 지역 모두 주민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움직일 때, 지역이 움직여요.”라는 연구참여자의 말처럼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뭔가 새로운 전환을 시도한다면 꼭 전제되어야 한다.

농촌에서의 경제적 활동은 지속 가능성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자본주의 경제로 편입은 경쟁 속에 살아남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안적인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농촌에서 자본주의 경쟁을 줄여나가며, 공적인 역할도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사회연대경제는 두 지역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외형화될 수 있다. 농촌의 위기에 맞서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주민들의 시도는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성과 상업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은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조직 내 연대와 함께 지역 내 연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것도 남겨진 과제이다.

그리고 사회연대경제 활동은 민주주의를 기본 토대로 하고 있다. 상호신뢰, 갈등 해소, 의사소통의 수평적 구조 등 조직과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노력 또한 꼭 수반되어야 한다.

국가의 전체 인구 규모와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저출산 고령화이지만 지역의 인구 규모와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 간 인구이동이기도 하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인구의 유출방지와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한다(박진경, 2022). 이와 맥을 같이하여 도시인들의 귀농·귀촌에 대한 의향은 37.2%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b, 2024). 이들 중 실제로 귀농한 사람들을 확인할 수 없지만, 인구이동을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다. 지역연대성에 기반하여 사례지역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도전과 노력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농촌에서의 새로운 삶의 모형을 만들어가면서도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좋은 삶터와 쉼터를 원하는 귀농·귀촌인들의 요구에도 접근해갈 수 있을 것이다.

농촌의 의미는 농촌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최수명, 2006). 농촌에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농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농촌의 새로운 연대의 모습들은 농촌에 이주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친구들이 “다 접고 내려가더니 자기 삶을 재미있게 잘살고 있구나!”라며 실제로 농촌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농촌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두 사례지역의 지역연대성은 농촌 지속 가능성을 열어놓게 한다. 하지만 지역연대성의 역사나 경험을 축적하고 있지 않은 농촌지역의 경우에 어떻게 지역연대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는 고민이 되는 지점이다.

김정섭 외 (2019: 59-61)는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과 장동면의 연구를 통해 필요한 지역사회의 조직을 만들고 지역사회 조직들이 연대하거나 협력하는 연결망을 구성하는 과정에 ‘우리 지역사회는 어떤 곳이며,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하는가’라는 서사가 동반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서사의 재구성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주민들이 협동해 마련하고 향유한다는 것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삶을 유지시키는 데 지역사회 조직들의 협력과 연대 활동이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운동론 연구자 Polletta(2002)가 20세기 미국에서 참여민주주의적 실천을 되짚으며 조직화 과정에서 수 많은 회의들, 일상적 관례들, 쌓이는 관계들이 곧 사회운동의 기반이 된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회의, 관례, 관계형성 등은 실천 과정에서 사회운동의 기반이 되고 학습의 장이 될 것이라고 한다. 요즘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귀농·귀촌인들이 없는 농촌은 거의 없다. 지역주민들에 의해 필요와 연관된 공동의 사업들이 혁신적으로 창안되고 지역주민들과 귀농·귀촌인들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생산한 성과를 호혜적으로 재분배하고 공공재로서 축적해 나가는 사회연대경제의 과정에서 마을민주주의와 민주적 자치의 시민적 공공성의 체험을 쌓아가는 것이다(이해진, 2015: 104). 두 사례지역에서처럼 다양한 연대의 경험은 똑 떨어진 것이 아니라 축적되는 것처럼 농촌마다 속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러한 협력과 연대가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농촌의 두 사례를 통해 얼마나 많은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되는 지점이며,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다. 이후 농촌 연구자들이 농촌지속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다양한 농촌 사례연구가

진행된다면 이 연구가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면 농촌이 소멸하는가?’이라는 연구자 스스로 던진 질문으로부터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며 연구자가 10여 년간의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농촌이 도시의 놀이터나 휴양지로만 남게 될 것 같은 그리고 공동화되는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된 것도 연구의 부분적인 성과라 생각하며, 29명의 농민, 농촌활동가를 만나면서 농촌을 계속 지키고 있는, 쉽 없는 노동 속에서도 새로운 연대의 유형을 만들고 도전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느꼈던 뜨거운 감동은 연구자의 농촌에서 삶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농촌에서의 삶의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분들의 목소리를 이 보고서에 모두 담을 수 없음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농업으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빨리 알려줘야 해요.”(MF, 후계농)

농촌에서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한 연구참여자의 말로 마무리한다.

참고문헌

- 강수택. (2015). “지역연대의 의미와 유형”. *로컬리티인문학* 14(10), 55-88.
- 김영란. (2009). “장흥군 노력도의 마을조직에 관한 연구: 마을 조직의 사회적자본 탐색” *한국
도서연구* 21(2), 109-139.
- 김정섭 외. “농촌지역사회에서 펼쳐지는 협동 조직 활동” *농촌사회* 29(1), 7-68.
- 김태연. (2018년05월18일). “무엇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인가”. *한국농어민신문*
- 김태곤 외. (2006).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일간 비교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526.
- 류석춘. (2003). *사회적 자본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그린.
- 박규택. (2009). “로컬의 공간성 이해를 위한 이론적 틀”. *한국민족문화* 33, 159-183..
- 박진경. (2022).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와 자생적 대응전략”. *지식산업과 고용* 2022년 봄호,
35-49.
- 사회적경제지역화연구소. (2022). “한살림 생산자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협업전략 사례연구: 충
북 괴산 감물 흙사랑 영농조합법인 생산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2022년 연구용역 보
고서.
- 소진광. (2004).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1), 89-118.
- 신유정·차승아. (2021). “농촌 마을 점방의 사회적 역할과 가능성에 관한 질적 연구”. 대산농촌
재단.
- 양준호 외. (2022). *지역순환경제*. 한울아카데미.
- 유기웅 외.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스토리.
- 이해진. (2015).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 혁신, 호혜, 협력의 원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5), 77-111.
- 이해진·김철규. (2021). “농업농촌농민(농農)의 사회적 가치와 먹거리 시민권”. *지역사회학*
22(3), 97-133.
- 임설아·정성호. (2017). “귀농·귀촌인의 사회자본이 농촌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학*
18(1), 79-99.
- 자코 드푸르니·마르뜨 니센 외. (2021). 김신양, 엄형식 역. *사회연대경제*. 착한책가게.
- 전미리. (2022). “농촌지역개발사업 참여주민의 사회적 자본 인식유형 연구 - Woolcock의 사
회적 자본 이론을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29(1): 1-18.
- 정기환·심재민·최경은. (2006). *농촌지역이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 발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수명. (2006). “새로운 공동체 질서형성과 농촌지역개발”. *전원과 자원* 48(1), 19-25.

충청지방통계청. (2022). “통계로 보는 충청지역 귀농·귀촌인 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성 평가*”. R708 연구자료-2.

_____. (2024).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KREI 농정포커스: 제221호.

한주성. (2021). “귀농이주자의 지역 만들기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7(4), 490-504.

한겨레신문. (2023년05월24일). “쌀로 이름난 산골마을 미원, 우리 밀로 ‘빵빵한 변신’”.

한겨레신문. (2023년11월02일). “미원과 미원의 만남‘...’조미료 미원처럼 미원면 빵도 대박나길”.

Polletta, Francesca. (2002). *Freedom is an Endless Meeting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괴산군청 홈페이지 www.goesan.go.kr.

청주시청 홈페이지 www.cheongju.go.kr

충청북도청 홈페이지 www.chungbuk.go.kr